

### 관광 내수 살리기 총력전 여행주간 확대·숙박할인 쿠폰 100만 개 뿌려 관광내수 살린다



지난 5월 26일,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비수기를 맞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행 주간 기간을 2주에서 한 달로 늘리고 최대 4만원의 숙박 할인 쿠폰을 100만 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국내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해 각종 캠페인과 할인 행사, 관광상품권 지급을 추진한다.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2주간 예정된 여행주간을 한 달(6월 20일~7월 19일)로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여행주간에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을 출시할 계획이며,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만원 숙박할인 쿠폰 100만 개를 지원 하고 1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도 해줄 계획이다. 그리고 치유관광지 50선 상품 최대 5만원 할인, 전국 놀이공원 최대 60% 할인, 관광벤처상품 40% 할인, 지역여행 할인 상품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12만 명까지 확대·지원하고, 전용 사이트에 50% 특별할인상품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선결제로 적립금을 조기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조업·면세점·MICE·공항버스업 추가 지정

지난 4월 22일,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항공기 급유와 하역, 기내식 공급 등을 담당하는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사·국제회의업(MICE), 공항버스업 등이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10조원대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휴직 및 휴업조치를 한 사업장에 휴업수당의 최대 75%까지인 정부지원이 90%까지 올라가고 상한액도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고시·시행령을 개정해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에게는 무급휴직 즉시 지원금을 제공하고, 일반업종의 경우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 한국관광공사, 관광거점도시 5개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공사)는 올해 초 선정된 국제관광거점도시(부산) 및 지역관광거점도시(강릉, 목포, 안동, 전주) 지자체들과 함께 5월 27일 안동시청에서 '관광거점도시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광거점도시 브랜드 구축 및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들도 도시별 장점을 활용한 브랜드 구축에 나선다. 국제관광거점도시 부산은 다양한 축제와 역사·문화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 남부권 국제 관문도시로의 도약을 꾀한다. 또한 지역관광거점도시 강릉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비롯한 전통문화·자연환경, 전주는 전통문화, 안동은 유교 문화자원, 목포는 음식문화 콘텐츠, 섬 등

지역 특화 자원을 중심으로 도시별 브랜드를 구축하게 된다. 공사 심혜련 지역관광콘텐츠실장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첫 해인 올해 인지도 제고와 함께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사와 각 지자체가 협업할 예정이다"라며, "서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5개 도시가 세계 수준의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장영훈 부회장, 전북대 발전기금 1억 원 기탁**



(주)엠커뮤니케이션 대표 겸 전북대학교 예술교육커플링 사업단 겸임교수인 장영훈 부회장은 4월 10일 전북대 발전과 교육에 써달라며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장 대표는 “전북대와 오랜 인연을 맺으면서 대학과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고, 이 기회를 통해 이룰 수 있어 기쁘다. 전북대가 따뜻하게 동행하는 대학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김성복 회원, 그라운드케이, 'SW고성장클럽 200' 선정**



4월 10일, 그라운드케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2020 년 SW고성장클럽 200' 기업에 선정됐다.

SW고성장클럽 200은 지속가능한 고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SW 기업을 발굴해 마케팅, 기술 개발, 해외 진출,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라운드케이는 차량을 이용한 각종 컨시어지/공항편의/의전/관광/여행/수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전문성과 노하우, 기술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위 있는 교통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라운드케이는 SW경쟁력을 강화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B2B 차량 서비스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전북이 5월 12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관광공사 강동한 팀장, 삼남해외관광 여행사 김주호 대표, 마이스월드 김기억 상무이사,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류인평 교수를 비롯한 각계 인사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가 진행됐다. 이번 2022 전북대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제생활체육종합대회로 26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70개국 1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6월 10~18일 9일간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임원 류인평 교수, (사)지역관광문화발전협의회 이사장 선출**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류인평 교수가 4월 29일 이사장에 선출됐다. (사)지역관광문화발전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설립됐다.

이 협의회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분산·체류형 선진 관광지 육성과 지역 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분산·체류형 선진 관광지 육성과 지역 관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역사, 예술, 문화, 인문 등 다양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명소들을 활성화하고 있다. 류인평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정부 주도 관광정책의 계획에서 벗어난 민·관·산 학계 중심의 지역 관광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 수도권과 제주도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관광 집중 현상을 완화시켜 전라북도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 향상과 관광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며 올해 계획으로는 지방 공항과 KTX를 연계한 ‘시간여행테마’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아·태 마스터스대회, 전주시 국가관광거점도시 사업설명 시간 가져**



지난 6월 12일,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6월 월례회에서 전라북도청 문종선 팀장과 전주시청 조영호 팀장이 초청된 사업설명회가 진행되었다. 문종선 팀장은 2022년 6월 10~18일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될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요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번 대회는 26개 종목으로 구성된 국제생활체육종합대회로 70개국 13,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어서 조영호 팀장은 지난 2월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진행될 전주시의 국가관광거점도시 사업 계획으로 한옥마을 리브랜딩, 지속 가능한 관광시스템 구축, 전주관광 외연 확장, 융합 협력형 관광 역량 창출 등 4대 전략과 202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50만 명 유치 및 4만 명의 관광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6월 월례회 개최**

- 일 시 : 2020. 6. 12(금) 17:00
- 장 소 : 전주 연가
- 주요내용 : 추진 중인 사업보고 및 초청기관 사업설명회



## 전주 육상경기장·야구장 이전, 기본설계 착수



전주시는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반월동에 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로 신축·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본설계는 설계공모 당선작인 '드림 포레스트'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드림포레스트는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인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표현하고 있어 전주시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주시는 6월부터 절차를 진행해 내년 6월에는 착공을 시작할 것이며, 2023년에 완공하는 게 목표이다. 현 덕진동에 있는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에는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원과 전시, 미술이 역동적으로 호흡하는 예술의 숲 ▶수백, 수천의 나무와 꽃이 어우러지는 정원의 숲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생태놀이터를 구현하는 놀이의 숲 ▶유네스코 창의음식의 거점역할을 하게 될 미식의 숲 ▶국제 규모 전시컨벤션센터로 전주발전을 이끌어갈 MICE 숲 등 5가지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주시립미술관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기장 너거리의 교통량에 대해 우려가 있어 백제대로 구간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 신중하고 확실한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첫발 떴다



전북 새만금 사업지에 스마트 수변도시(조감도)를 조성하기 위한 매립공사가 연내 착공된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방조제 내측 국제협력용지에 조성하는 친환경 복합도시로, 현재 통합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5월 11일 수변도시 매립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오는 9월까지 참여 업체를 접수한 뒤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 11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까지 1조1,000억 여원을 들여 매립공사 뒤 조성하는 스마트 수변도시에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6.6km<sup>2</sup> 부지에 거주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복합도시다. 다양한 중·저밀도 주거시설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 어디서든 수변 조망과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변도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도시가 개발 기본 개념이다. 국제업무 시설과 복합리조트 등이 함께 들어서며 도시 중심에는 창의지구를 조성해 글로벌 교류 기능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2018년 말 시행한 '새만금 사업법'에 따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수변도시 통합개발 계획에는 공간별 기능을 구분하되, 거점 간 녹지·수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며, 마이스(MICE)지구와 레저지구, 생태주거 지구 주변에 3개 호소를 조성하고, 수변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 전북 보물 옥정호, 천만 관광시대 연다 ... 2기 사업 추진

6월 23일, 전북 임실군이 옥정호 수변 관광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년 간 25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옥정호의 수변과 주변 지형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관광자원 개발과 산악레포츠 체험 기반시설 조성 등이 핵심이다. 임실군은 135억원을 들여 곡선형 집라인을 비롯한 체험 시설과 커뮤니티센터, 휴게공간, 요산공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친화형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115억원을 투입해 테마공원과 캠핑장, 수변 데크, 국내 최대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등을 만들어 수변과 생태·산림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수변 관광 기반시설도 설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옥정호 순환도로는 물론 호수 주변을 걸어서 여행하는 둘레길 7.3km도 만든다. 호수를 오가는 생태 탐방선 운항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옥정호의 자랑거리인 봉어섬 에코 가드 사업 추진을 위해 봉어섬 부지 6만6,000m<sup>2</sup>를 매입해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고 각종 꽃과 나무를 심어 내년부터 산림욕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 특별여행주간...전북투어패스 '1+1 특판' 실시

전북도는 정부의 특별여행주간(7월 1일~19일) 운영에 맞춰 '전북투어패스 특별여행주간 1+1 특별판매 행사'를 실시한다고 6월 25일 밝혔다.

전북투어패스는 전북 14개 시·군 84개소 관광지를 정해진 기한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다. 1,317곳의 특별할인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매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판매 상품은 1일권(5,900원), 2일권(1만2,900원), 3일권(1만8,500원) 등이며 이번 행사 구매자는 투어패스 카드를 한 장 더 받게 된다. 사용 기한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광속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특별여행주간 '전북투어패스 1+1 특별판매 행사'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한국스마트관광협회·관광경영학회, '코로나19 이후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16일 전주시와 한국스마트관광협회(회장 이영근), 관광경영학회(회장 류인평)가 공동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전주시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와 접목한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관광에 활력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영근 한국스마트관광협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위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4차 산업혁명 추세에 맞는 관광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 회장은 "스마트관광 시대,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모바일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관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교통, 언어, 예약, 결제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가 소규모 비대면 관광, 언택트(비대면) 중심의 관광소비가 예상된다"며 "모바일 중심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전라북도 언택트 관광지 12선

## \*언택트란?

콘택트(contact : 접촉)에 부정을 의미하는 언(un-)을 붙인 합성어로, '사람과의 접촉 지양' 을 의미합니다.

### 야간관광

#### 남원 광한루원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 군산 은파호수공원

전북 군산시 은파순환길 9



#### 순창 강천산

전북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길 97



#### 진안마이산산악초터운 별빛소리정원

전북 진안군 단양리 827



### 자연생태관광

#### 완주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요동마을



#### 익산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대리 533-1



#### 정읍 솔티 달빛 생태숲

전북 정읍시 쌍암동 389-2



#### 전주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반월안길30-11



#### 남원 서도역

전북 남원시 사매면 서도길 32



#### 부안 적벽강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 32



#### 임실 사선대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68-7



#### 고창운곡람사르습지생태관광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서원길362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사무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37(중화산동2가)

[www.jbm-mice.com](http://www.jbm-mice.com)

T. 063-715-0880 Fax. 063-252-0701

E [jbm7150880@naver.com](mailto:jbm7150880@naver.com)